

# 전남관광재단 설립 본격화

### 전남도,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심의 의결 기존 전남문화관광재단 관광분야 빼고 운영

전남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립이 본격화된다. 관광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재단을 설립해 5년 간 100억원을 출연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역 관광산업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사업은 25명 규모의 새로운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발전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문화 중심 조직인 전남문화관광재단의 경우 관광 분야를 떼어내는 형태로 축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지역 관광산업 전담기구 설립 방안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최종보고서는 체계적 관광산업 육성·개발과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전담조직으로 전남관광재단을 설립해 출자금과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보고서는 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는 데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지역 출자하고 향후 5년간 운영비 형태로 106억여원을 지원할 경우 여행상품 개발·크루즈 유치·마이스(MICE) 유치 등 관광 산

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재단 수익금은 299억여원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광재단이 설립될 경우 향후 5년 간 생산유발효과 54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206억, 수입유발효과 69억여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도 732명의 취업(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 신설되는 관광재단은 최소 인력을 이사와장과 대표이사를 포함, 2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초기 1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는 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지역 5개 시 17개 시·군 지역민(2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보고서는 또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와 관련,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강해 관광 분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위상과 지위를 가진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남관광재단 설립으로 기존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 분야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축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말까지 재단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광재단이 전남 핵심 프로젝트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섬·해양 개발을 통해 국가 관광산업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R&D지원체계 강화 제조업 경쟁력 다진다

### 11대 대표산업 상시혁신지원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광주시와 12개 지역 산업 유관기관들이 광주 11대 대표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14일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등 12개 지역 산업 유관기관과 '민선7기 대표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상시혁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선7기 광주시의 미래산업 비전과 11대 대표산업 집중 육성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기업과 지역 내 R&D 기관이 연결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대표산업별 전담 기관 지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 활용 참여 ▲R&D·비R&D 성과 공유 ▲기관별 상담 코디네이터 운영 및 기업 '기술개발 문제해결One-Stop' 처리체계 구축 ▲지역발전에 필요한 협업체 활동 참여 ▲관련 조례 개정 ▲연구개발(R&D) 우수 기업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일본 수출규제에 어느 때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

고, 4차산업 혁명으로 기술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 인공지능·빅데이터·수소경제 등 핵심 미래전략산업을 총력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중심 R&D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광주시는 자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의 기관별 특화된 R&D의 개별 지원을 방식에 탈피해 연구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함께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가 공장에서 제품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성과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적시성 있는 집중 투자와 R&D투자를 확대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상시적인 혁신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기업 자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할 경우 대중소기업간 협력 모델을 통해 강소기업이 출현될 수 있도록 산업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순경중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지역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에너지산업, 공기산업 등 핵심 산업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는 15일 목포역 광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8-15 전남평화통일열차' 출정식을 개최했다.

## 목포·여수역 출발, 파주 도라산역까지 평화통일열차 달려

전남도, 목포역서 출정식  
KTX 8량 500명 탑승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한반도 평화 통일 염원을 담은 평화통일 열차가 목포·여수역에서 각각 출발, 경기 파주 도라산역까지 830km 구간 운행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목포역 광장에서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장석웅 전남

도교육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의 고진형 상임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와 공동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8-15 전남 평화통일 열차' 출정식을 개최했다. '평화통일 열차'는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첫 해에는 KTX 1량으로 진행했다가 2018년에는 무궁화호 8량으로 늘렸고 올해는 역

대 최대 규모인 KTX 8량을 운행한다. 향후 철도를 통한 전남의 농수산물과 북의 지하자원 등 남북교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에서부터 분단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철길을 열어가자는 의미로 해마다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 '8-15 전남 평화통일 열차'에는 목포역에서 300명, 여수엑스포역에서 200명이 탑승해 용산역에서 새마을호로 환승해 파주 도라산역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짜였다. 도착 후에는 도라산역 주변을 돌아보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평화 손잡기 행사에 참여한 뒤 되돌아온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한민족의 미래이므로 남북이 하나 돼 평화 위에 번영이 꽃피는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제기후·환경산업전 다음달 4일 DJ센터서 열려

### 기아차·포스코 등 125사 참가 환경산업·정책·체험 테마로

호남 유일·최대 환경전시회인 '제11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전시회에는 125개사가 참여해 365개 부스를 꾸민다. 대기오염방지기술을 비롯해 수처리, 폐기물처리, 기후변화대응산업, 저영향 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기법, 에코(ECO)산업, 정부정책 홍보 등 기후환경 전반적인 분야의 품목이 선보인다. 올해는 환경산업, 환경정책, 환경체험 3가지 테마로 구성해 기업체·전문가·정부·일반시민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종합전시회로 진행된다.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광주환경공단, GIST국제환경연구소,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캐나다, 인도 등 30여 명의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와 전국 환경 관련 공공기관 직원을 초청한 공공구매상담회를 잇따라 열여 참가업체들의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동남아시아 공략을 위해 동남아시아 정부 관계자와 대기업 소속 바이어를 초청한다. 광주·전남지역 기관과 중앙 공공기관을 초청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강연, 녹색제품 구매 의무 교육, 환경기술인 전문 교육, 제3회 지속가능경영포럼 등 각종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한다. 일반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인 'ECO 교육·체험관'도 운영한다. 실감나게 체험하는 친환경 가상현실(VR)체험관, 멸종위기 동식물보호 사진전, 야생동물 구제 체험부스, 의류와 가구 리폼을 통한 업사이클 체험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제공한다. 전시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생활 속 환경 안전'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 체험관을 마련하고, 환경기업 채용설명회도 개최한다. /김형호 기자 khh@

## 호남동 대원 빌딩 특별 "특별분양"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 " 추천 업종 "

- 1 높은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 2 불링장, 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